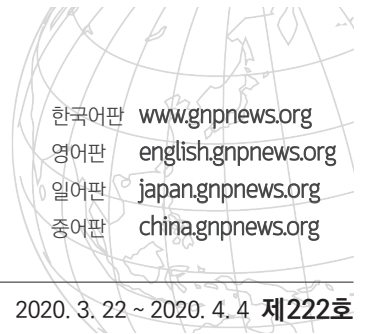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3. 22 ~ 2020. 4. 4 제222호



▶ 파키스탄의 한 여인과 아이(제공: WMM)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모자(母子)처럼 보이는 한 여인과 남자 아이가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웃고 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됐는지 모포로 싸아 조심스레 어린 양을 안고 있다. 고지대와 초원이 많은 파키스탄에서는 양과 함께하는 삶이 익숙하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고, 양 잡는 것도 배운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양을 어느 날, 목을 베고 피를 쏟

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불로 태우고... 어릴 때부터 희생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지은 흉악한 죄의 진노가 '양'에게 쏟아졌구나. 나 대신에 '양'이 심판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셨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 [GNPNEWS]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 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 하였도다”(이사야 53:7)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코로나 이유로 예배 중단 강요... 종교 자유 억압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정치권의 예배 중단 요구가 잇따르면서 기독교계가 코로나 재난을 이유로 예배 중단 강요하는 행정지침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12일 성명을 내고 “종교의 본질과 자유를 훼손하고 종교단체들을 억압하는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합동총회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언급한 ‘종교집회 전면금지(대통령) 긴급명령’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광주지역 기독교단체인 사회대책연대(공동대표 맹연환·나학수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지역 노회장 연합회(대표 배병렬 목사)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을 틈타 교회당 예배 중단’을 강요하는 졸속행정을 비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회예배 지속여부는 정교분리를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의 양심적 결정에 따라야 하는 영역으로 일부 단체장의 직·간접적인 위협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회언론회는 9일 ‘예배는 명령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는 수퍼전파자로 지목된 신천지와 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태도”라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정부나 권력을 가진 집단이 마치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 안된다.”고 밝혔다. [GNPNEW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출애굽기 8:1)

기도 | 정부가 공공기관 등 다중 이용 시설은 그냥 두고 종교기관만 규제하고 있는 오류를 발견하게 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코로나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출처: freepik.com



마음의 눈을 밝히사 (6)

운동, 외모, 친구, 학력, 진리... 내 삶의 우선 순위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라”(잠언 8:17)
만남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부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준다한들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설 때 우리의 태도는 전심이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 알아볼까?’ ‘연구 좀 해볼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전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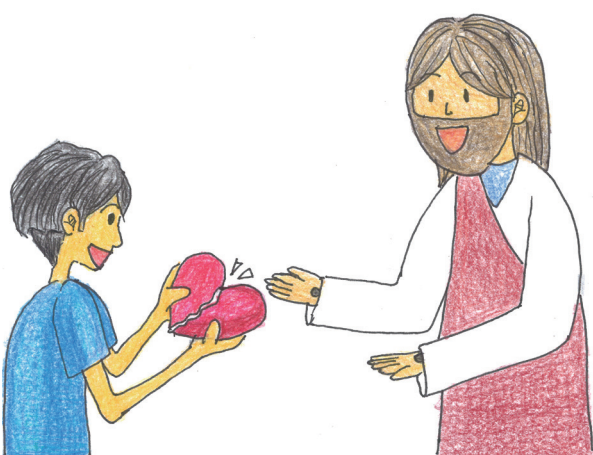
당신의 전심을 진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

다. 우선순위, 초점집중, 대가 지불입니다. 게임, 축구, 친구, 연애, 외모, 대학, 취업...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보면 내 전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집중되어 있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돈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온통 돈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추구할 때 절로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습니다. 자기만족, 자기유익을 위해서라면 절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고,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인정할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무슨 취급을 받더라도 나를 통해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그 일을 위해 대가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전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일러스트=김경선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코로나로 인한 종교집회 금지는 공산주의식 접근”



▶ 예배당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마스크를 끼고 열감지 카메라를 지나가고 있다. (출처: 연세중앙교회 홈페이지 캡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지자체에서 ‘집회 금지조치 긴급 행정 명령’ 등을 선포하면서 위반시 ‘벌금 300만 원’을 적시한 ‘종교집회 금지 협조 요청문’을 발송하고 있다. 확인된 곳만 경북 칠곡·경산, 경남 창원 의창, 인천 연수 등이다. 이와 관련, 예장 합동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용인 새에덴교회)도 지난 1일부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한 뒤, 이에 대해 “예배를 드리면 나쁜 교회이고, 예배를 안 드리면 좋은 교회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짜여지고 있다.”고 SNS를 통해 토로한 바 있다. 또 지난 8일에는 교회예배를 당분간 무조건 중단해야 된다는 방침으로 이용섭 광주시장 및 광주 공무원들이 주일예배를 드리려던 408개 교회를 찾아가 “우리 모두 마스크 착용합시다!” “가정 예배 드립니다” 피켓을 들고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사회대책연대 공동대표 맹연환·나학수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지역 노회장 연합회 대표 배병렬 목사 등이 성명발표와 국민일보 전면 광고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부 단체장들의 형평성 없는 직간접적인 위협은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부분은 가정 예배를 인터넷에서 드리고, 교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은 건물 방역, 열화상 카메라 또는 열 측정기 설치, 손 세정제 비치 등 어느 단체보다 세심하게 자체 방역을 하고 있고, 교회의 예배 횡수를 대폭 줄이는 등 집단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교회가 집단 감염의 주범처럼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당을 폐

쇄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일부 단체장은 주일 교회당 예배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하거나 종교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그들은 또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모이는 교회의 집회를 집단 감염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여기고 폐쇄를 요구한다면,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집단으로 모이는 (일하는) 관청은 왜 공직자들이 자발적 ‘재택 근무’를 하지 않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태리처럼 지역 내 이동제한 및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을 중단함으로 교회당 예배도 가정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수용할 수 있으나, 다른 다중 이용 시설은 놔두면서 교회당 예배만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전 교회의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언론매체들이 기독교의 예배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도 한몫 거들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겨레 등 통신사와 일간 신문이 지난 7일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교회의 예배는 없던 것을 갑자기 신설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강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저의로 보인다. [GNPNEWS]

코로나로 고통하는 대구 섬기는 ‘사마리안들’ 결성

대구 이웃 위한 사마리안들... 장애인 취약 계층 돌봄 등

“대구 지역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돕기 위한 재정은 확보됐으나 요양기관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건강이 취약한 노약자 가운데 자가 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집단 감염자 발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이웃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긴급 구조와 도움의 손길인 ‘대구 이웃을 위한 사마리안들’을 구성했다. 전 세계 난민을 비롯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섬겨온 선교단체 사마리안들(대표 박준범)이 이러한 봉사 활동에 함께할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 개인 자원봉

사자를 찾고 있다. 공중보건인인 백승민 선교사는 “의료진들이 현재 대구지역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간호하면서도 간병, 청소 등의 일을 도맡아야 할 상황”이라며 “고통 중인 이웃을 섬길 그리스도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백 선교사는 또 “마음은 있지만 현장의 필요를 도울 방법을 모르는 개인, 지역교회, 선교단체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전문 간호사, 경력 간호사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사마리안은 또 대구 지역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전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일부를 내어주듯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기증하거나 대구 시내



253개 요양 시설에 전달하는 ‘마스크 십일조 챌린지’를 제안했다. 또 경제가 거의 마비된 대구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가 판매하는 물품, 음식을 구매하거나 그 물품을 대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나 취약 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3.5~3.14)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 지난 20년간 실천적 기독교인 비율 절반 감소

최근 미국의 바나그룹이 시행한 ‘미국 교회에서 기독교의 역할’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인의 25%만이 실천적인 기독교인이라 답했다. 이는 지난 2000년 45%였던 것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8일 보도했다. 하나님,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불의를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십자가의 가치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탈리아, ‘전 국민 외출 금지령’ 발표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달 22일 북부 11개 지역에 대한 주민 이동 제한령을 내렸음에도 바이러스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3월 1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이동 제한령을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고 국내의 언론들이 최근 전했다. 사실상 ‘전 국민 외출 금지령’에 준하는 조처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생명 다해 주님을 찾는 회복의 기회로 이 사태를 사용해주시길 기도합니다.

美 워싱턴 주 연방 법원 경기 후 기도 금지

미국 워싱턴 주 연방 법원이 지난 5일 브레머튼 고등학교 풋볼 코치 조 케네디가 경기를 마친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9일 보도했다. 지난 2008년부터 경기 후 필드에서 기도한 그는 지난 2015년 고등학교 풋볼 팀 감독직에서 해고됐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 것처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을 통해 로마가 변화된 것처럼, 미국 땅의 증인들을 통해 이 땅과 열방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국, 마스크 배급제로 사회주의 도입... 북한, 시장에 맡겨 마스크 가격 하락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인 우리 정부는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 시행 등 배급제로 사회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며 공급 부족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오히려 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해결하는 시장 시스템에 맡겨 마스크 가격이 하락했다고 데일리NK가 10일 보도했다. 공산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정반대로 행해지고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 이 땅의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는 올바른 정책결정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도 통제와 규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3월 23일 ~ 4월 4일

- 3월 23일 ~ 3월 28일** 3.23~28(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010-5337-2771, 3.24(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3.26~3.28(09~23시) ▶경기 고양 / 대화사랑의교회(김**)010-4058-0675, 3.27(0~24시) ▶울산 울주 / 우정교회(박**)010-8308-4628, 3.27(10시)~28(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3.27(20~22시), 28(11~13시) ▶경기 고양 / 그루터기교회(신**)010-4944-3735, 그외 5교회 진행중.
- 3월 30일 ~ 4월 4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최**)010-4145-3317, 3.30, 4.1~4(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3.31, 4.2~4(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4.2(10~15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4011-6719, 4.2(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4.3(12시)~4(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외 5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기독교 박해 지역, 과격 이슬람과 조직 범죄 등 위협

오픈도어선교회, 5개 지역 분석 결과 발표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유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세계 기독교 박해 리스트와 2019년 한 해 동안 나타난 기독교에 대한 박해 동향을 다섯 가지로 구분, 소개했다.

▶사헬과 아시아 지역, 이슬람 과격주의의 박해= 첫째 이슬람 과격주의 확산으로 인한 기독교 박해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사헬 지역과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헬 지역의 경우,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의 몰락 이후 나타난 권력 공백으로 돈, 무기, 마약, 조직 범죄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세력이 사하라 이남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때 법의 지배와 통치의 효과가 없는 취약한 지역에서 기독교인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말리(세계기독교박해지수 29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지하디스트가 나라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 무장단체는 여러 민족, 부족 그리고 사회 경제 집단을 조직하여 신병을 모집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모리타니아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지하드 저항 세력과 싸우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지고 있지만 2019년 10월, 캐나다 광산 회사 호송대가 부르키나파소에서 매복 공격을 당하면서 37명이 사망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과격주의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주요 집단이다. 2019년 4월 부활절에 스리랑카(30위)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으로 가톨릭과 개신교인 250명 이상이 사망했고 5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중남미 지역, 조직범죄 집단의 박해= 부패 스캔들이 2019년에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강타하면서 국가 구조의 붕괴와 당국에 대한 불신이 큰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켰다. 당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조직적 범죄 집단과 민병대가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는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갈취, 납치, 살해 또는 살해 위협을 받았고 콜롬비아(41위)나 멕시코(52위) 같은 나라를 떠나야 했다.

▶중국·인도, 사회적 고립으로 박해= 중국(23위)은 하나님을 시진

핑 주석이나 당보다 더 숭배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감시하는 방식으로 박해하고 있다. 신장의 한 삼자교회는 성도들을 안면인식 이후 교회에 들어가게 하고, 후베이성의 중부 지방에서도 이런 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또 사회 신용 시스템을 운영 중인 산둥성 룽청은 복음 전파시 처벌조항을 추가했다. 또 휴대전화 구입과 인터넷 사용시 사회 신용 시스템을 접속하도록 하며, 종교적 온라인 정보 공유마저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

생체인식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려는 인도(10위)도 '진정한 인도인이 되려면 힌두교도가 돼야 한다.'는 힌두교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며 힌두교 이외 타종교 강제 개종금지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 삶의 기반 와해= 거의 9년간의 시리아(11위) 내전과 수년 간의 이라크(15위) 분쟁은 기독교 공동체를 계속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라크에서 2003년 이전에 150만 명에 달했던 기독교인 인구는 현재 20만 2000여 명으로 한 세대 만에 87%나 감소했



▶ 교회 폐쇄를 항의하는 알제리 기독교인들(출처: evangelicafocus.com 캡처)

다. 일부는 주거지를 찾기 위해 주로 니스웨 평원으로 조금씩 귀환했지만 안보, 교육, 건강, 취업난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는 기독교인들을 계속 괴롭히고 위협하고 있다.

시리아는 내전 이전에 220만 명으로 집계된 기독교인 인구가 현재 약 74만 4000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리아의 기독교인 인구는 대부분 국가 내에서 난민으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국외로 피난하여 난민으로 남아 있다. 이들은 연료, 물, 식량 부족은 물론 빈약한 의료 시설과 빼앗긴 교육 및 고

용 기회로 고통받고 있다.

한편, 레바논과 요르단에 남기로 한 기독교 난민들 중 남자들은 징병을 두려워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터키의 북동부 시리아 침공은 주로 쿠르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터키의 시리아 난민 송환 계획이 또한 아랍 수니파 세력을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난민 사태를 발생시켜 쿠르드족과 기독교인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두려워하고 있다.

[GNPNEWS]

번역=본지 국제팀

부르키나파소, 사회 혼란 부추기는 민간인 대상 테러 급증

연말 대선 및 국민투표 앞두고 의도적 공격 가능성 제기

부르키나파소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수십 개의 부대가 도로변에 매복된 폭탄 공격으로 사살되었는데 대부분 보안군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그러나 2019년 초부터 무장세력은 점점 더 민간인을 겨냥하고 있다.

분쟁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무력 충돌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

로젝트(ACLED)에 따르면, 2019년에만 1300명 이상의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 민간인이 표적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는 2018년 민간인 희생자의 5배가 넘는 수치다. 게다가, 2019년에는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실향했다. 2018년에는 그 13배가 넘는 사람들이 실향했다. 이를 합치면 총 76만 명의 국내 실향민(IDP)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

다. 극심한 불안으로 인해 동부에 있는 95개 보건소와 2000여 개의 학교가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다. 120만 명이 넘는 부르키나파소인의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무장 테러범, 예배 중인 교회에 방화

지난 2월 16일 주일, 약 20명의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부르키나파소의 북부 사헬주 야가 지역의 니제르와 접경한 국경 근처에 있는 판시 북동부 마을의 교회를 공격했다.

테러범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판시 마을로 들어가 교인들이 예배 중인 교회에 불을 질렀다. 대학살이었다. 적어도 10명이 죽고 18명이 부상당했다. 테러범들이 납치해 살해한 14명 중에는 담임 목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24명의 사망자 중 한 명으로 집계됐다. 무장세력은 교회에 불을 지르고 납치된 세 명의 젊은이들에게 약탈된 물품

운반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인근 세노 지역에 있는, 판시에서 북서쪽으로 180km 떨어진 도리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이후 충격에 빠진 마을 사람들이 야가 지역의 중심인 세바로 피신해 국내 실향민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목회자와 가족들 납치 살해

일주일 전인 2월 10일 월요일 저녁, 이슬람 무장세력은 세바의 한 교회 집사인 란코안드 바빌리빌레를 살해했다. 바나바스 펀드(Barnabas Fund)에 따르면 테러범들은 이후 바빌리빌레의 차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틴다노 오마르 목사를 납치했다. 그들은 차로 세바에 있는 목사의 집에서 그의 아들과 두 딸, 두 명의 조카와 함께 오마르 목사를 납치했다. 오마르 목사와 그의 아들, 그리고 두 조카의 시체가 2월 13일에 발견되었다. 다행히 그의 두 딸은 다치지 않고 풀려났다. 오마르 목사의 자녀 세 명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생존해 있다.

테러가 이처럼 늘어나자 전국적으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수도인 와가두구에서는 불안한 상황으로 정부가 국민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종교자유모니터링(RLM)에 따르면, 이 같은 현재의 치안 불안 상황은 올해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국민투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들은 민주주의진보회의 소속의 블레즈 콤파오레 전 대통령 관계자와 실제로 블레즈 콤파오레 자신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것은 이곳에서 아주 익숙한 시나리오다. 야당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이 상황을 타개할 구원자라고 내세우며 현 정부를 비난한다. 이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한동안 더 심해질 것으로 관측하는 시각도 있다.

[GNPNEWS]

번역=본지 국제팀



▶ 부르키나파소 교회 성도들(출처: 오픈도어선교회 캡처)

기획 | 창조 이야기 (31)

진화론에 근거한 약물요법 vs 창조론에 기초한 영양요법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영국 해군은 괴혈병이라는 끔찍한 병으로 100만 명의 군인들을 잃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괴혈병을 치료했을까? 바로 비타민C다. 당시는 비타민C라는 명칭을 몰랐다. 하지만 라임을 먹으면 그 병이 안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질병들은 비타민 부족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먹고 있는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안 먹고 있는 것 때문에 죽는다. 비타민B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각기병에 걸린다.

성경은 말한다.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데도.”(시 104:14~15, 한글KJV)

사람들은 밀에서 비타민E, 레시틴, 오메가3 지방을 빼내고 흰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빵이 몇 달 동안도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후로 사람들이 심장마

비와 중풍과 순환장애 등으로 죽기 시작했다. 간단한 공식이다. 빵이 될수록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켰다. 흰 빵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빵 안에 없는 성분 때문이다. 하나님은 심장을 강하게 하려고 빵을 만드셨다. 그러나 빵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그날 만든 빵의 반을 선반에서 썩어 못 파는 것이 아까웠다. 그래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빵이 오래가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건강에 대한 두 가지 철학이 있다. 하나는 진화론에 근거한 약물요법이다. 몸은 수백만 년간 우연히 모여진 화학물질에 지나지 않으므로 질병을 치료하려면 화학물질을 더 넣으면 된다는 것이다. 머리가 아플 때, 의사는 아스피린을 먹으라고 한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이 머리를 아프게 했는가? 아스피린이 부족해서 머리가 아픈 것인가? 우리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을 치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고속 도로를 주행할 때 연료 탱크에 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고



▶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음식을 주셨다.(출처: Unsplash 캡처)

치거나 불을 꺼버리거나. 하지만 불을 끈다면 그건 멍청한 것이다. 불은 문제가 있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두통 역시 몸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마그네슘이나 단백질 결핍 등등. 하지만 요즘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약들은 불을 꺼버리는 역할을 할 뿐이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약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약 의존도는 너무 지나친다. 거의 모든 질병들은 결핍증이다. 비타민, 미네랄, 오일

등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 몸은 16가지 비타민과 60가지 미네랄, 그리고 3가지 오일이 매일 필요하다.

모든 질병들은 결핍증

1845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의사 시모와이즈는 병원에서 출산 여성의 30%가 사망한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 의사는 의사들이 죽은 산모를 검사한 다음,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산모를 검사하러 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때는 미생물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그는 자기가 있는 병원의 의사들에게 죽은 시체를 검사한 후에 손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더니 사망률이 2%로 낮아졌다.

3000년 전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시체를 만진 후에는 부정하니 다른 사람을 만지기 전에 손과 몸을 씻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과학이 미생물을 알아내기 3000년 전에 말씀하셨다.

의학에 관한 또 하나의 철학은 창조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것은 몸이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음식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영양요법이라고 한다. 채소를 먹고 죽는 사람들의 비율은 해마다 0%이다. 그리고 매년 3명 정도가 비타민을 먹고 죽고, 320명 정도가 비처방약을 먹고 죽는다. 9000명 정도가 식중독으로 죽고 9만~11만 명 정도가 바르게 처방된 약을 먹고 죽는다. 이걸 잘못 처방된 약을 먹은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월남전에서 10년 동안 죽은 사람의 두 배가 되는 사람들이 매년 처방된 약을 먹고 죽었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역병과 마주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시간 되소서

현재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와 중동, 유럽, 미국, 남미까지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밀접접촉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배모임들을 모두 취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집약형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 중단을 해왔고 직장도 가급적이면 재택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합니다. 3개월만 넘어가면 80% 넘는 중소기업들이 부도나게 되고,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사장님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실제적인 생존 위기의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재난을 대처하는 패쇄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과 이로 인한 많은 반인륜적인 뉴스들을 접하면서 마음 아팠습니다. 그동안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중국 정부의 실체를 이번 기회에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뉴스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때마다 그것이 당국에 의해 삭제될 때 제 내면에는 이 거대한 악의 실체와

부딪히게 되고, 그 결과 저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받게 될 고난과 핍박의 두려움, 이곳 T국에서 체류형태를 바꾸어야 하는 시점의 재정적인 어려

운 무기력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영에 깊이 사로잡힐 때 그 어떤 능력도, 사랑도, 건전한 생각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의 영에서 벗



▶ 마스크를 쓰고 있는 중국 사람들(출처: thethaiger.com 캡처)

움, 점점 커가는 자녀들과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역차원에서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곳 현지인들과 아프간 난민들을 만나는 것에 주춤하게 됨으로

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지금까지 믿어 온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 날을 대비하여 능히 지켜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전쟁, 기근, 재해, 역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수한 방법으로 이 땅의 역사에 간섭하시는 과정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 자연주의가 말하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우한발 코로나 사태는 그동안 무차별하게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중공(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년의 개혁 개방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던 중국 국민들이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믿습니다. 극악무도한 중공 정부에 대한 행여나 했던 신뢰가 깨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라고 믿습니다.

고국 대한민국 또한 신천지라는

사이비종교가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속화되고 습관과 문화 차원으로 격하되었던 믿음의 생활이 복음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 인생의 절대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바르게 순종하는 계기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이 사랑하는 여러 동역자분들과 저의 삶 속에 충만히 넘쳐서 우리가 두려움의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GNPNEWS]

T국=전빌립, 김루디아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지상중계 | 비상한 때, 비상한 기도 (1)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는 초청이다”

한국교회와 사회는 지금 도덕적 가치와 천부적 인권, 가정의 가치가 세속적 가치의 도전 앞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성경적 진리와 세계관을 보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결과다. 이러한 때를 맞아 복음기도동맹은 각자의 삶의 터전의 골방에서 온라인 메시지와 기도인도자의 진행으로 유튜브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비상한 때 비상한 기도모임은 2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유튜브 김용의TV를 통해 중계된다. 다음은 메시지 요약. <편집자>

“절망 발견이 생명의 길로 나아오는 지름길이다”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로그미션 대표)

인간적 한계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때를 맞을 수 있다. 그때 부르짖고 의지할 대상이 있고, 초월적인 대상에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때 비로소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 김용의 선교사(©로그미션)

평상시에는 위기를 실감할 수 없다. 위기가 체감 될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시편 91편 1~16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가진 우리는 결코 두려움과 상관없다.

한국교회는 난데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주일 예배당의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성전이 폐쇄됐고, 모임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이 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제자화된 성도였는지, 교회의 생명력이 튼튼하고 분명했는지, 우리의 신앙 중

심이 십자가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 위기를 통해 명목주의 신앙과 생명력 있는 신앙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사람들은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누구는 ‘평상시’로, 어떤 누구는 ‘비상시’로 여긴다. 분명한 것은 지금 국가, 사회, 열방이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이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바른 위기의식을 가지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평범하고 균형있는 삶이라고 여긴 사람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평범하고 균형 있게 산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안정되고 편안한 시기였다.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를 위기라고 선포했다(마 24:37~39). 그럼에도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위기의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동성애가 총명한 소돔과 고모라는 불 심판 바로 아래 있었지만, 그 시대를 위기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벧후 2:6~7, 창 19:14~16). 위기를 체감했을 때는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므로 롯

의 손을 잡고 이끌어 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현실보다 실제였던 아브라함의 위기감과 간절한 기도가 롯을 이끌어 냈다.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 이스라엘은 제대로 믿지는 않아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멋있게 예배의 의식을 갖추고 헌금도 내고 안식일도 지켰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기라고 진단하셨다. 예레미야 28장 15~17절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평화를 예언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들은 종교 사기꾼이다. 그동안 지금이 위기의 때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왕 앞에서 때렸다. 망할 줄 뻔히 알면서 ‘넌 행복한 사람이다. 관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은 지면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 종교 기득

권자(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다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는다. 위기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실상을 듣고 절망을 발견했다면 그들은 생명의 길인 주님 앞에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위기라고 말하는 주님을 잡아 죽였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존재 자체가 비상하고 비범한 삶이 요구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영적전쟁 중이다. 주님은 세상이 우리에게 잘 맞고 안락한 것이 위기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라고 하신다.

지금은 평상한 때가 아닌 비상한 때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롬 13:18, 계 22:20) 구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위기의 때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주님은 ‘너희는 너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는데, 아니다. 너희가 보는 것과 다르다. 지금은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신다. 이때를 놓치면 기회가 더 있다는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한다.

위기를 만나면 그동안 치장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그리고 본질을 붙든다. 위기의 때에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삶에 얼마나 잡다한 것들이 붙어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주님을 만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위기는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는 초청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적 세계관은 생명의 삶을 만든다”

이태희 목사
(그안에진리 교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삶을 만든다. 눈이 어두워지면 삶이 어두워진다. 눈으로 형성된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이 삶이 문화를 이룬다.

태초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대적하는 사탄의 관점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관점이 아담과 하와 앞에 주어졌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렇지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

정하면 된다.’는 사탄의 관점을 택했고,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원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사탄의 관점을 ‘인본적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태초에 시작된 영적전쟁은 관점의 전쟁이었다.



▶ 이태희 목사(©로그미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창 1:28). 하지만 사탄의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망’에 처하게 됐다(창 3:17).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사망과 저주의 시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다.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은 내가 주인인 삶

인본주의는 ‘내가(我, 나 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主, 주인 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산다(生, 살 생)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아주생(我主生)’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아주사(我主死)’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하면 다 죽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다. 사탄은 ‘네 감정, 네 생각, 네 느낌대로 행하면 된다.’고 미혹한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다.

세계관은 안경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성경적 관점을 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의 이원화가 일어난다. 요시아 왕은 율법서를 발견하자 옷을 찢었다. 율법으로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많다. 먼저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차지한 신념 체계다. 니체는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다. 인본주의 선언에서도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실현하는 것도 인간이 단독으

로 할 일이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도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개혁(16C)으로 세워진 성경의 가치가 계몽주의(18C)이후에는 이성으로 대체되었다.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세워진 문화와 문명을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한다. 모

든 일들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을 토대로 결정하고 계획하면 진보하고 번영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지만, 오히려 빈익빈부익부와 세계대전으로 인간의 문명이 파괴됐다. 이 때문에 모더니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20C)로 넘어가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신념은 ‘모더니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들을 해체시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족질서, 자본주의, 교회, 남녀 성별, 성경 등을 모두 해체시키고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가 가장 집중하는 것이 성(性)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성을 해체하면 모든 것을 해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령한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의 윤리, 성의 질서 해체에 집중한다. 뉴에이지 신학의 핵심은 ‘모든 개인은 신’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영성으로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없다. 하나님이 오늘날 비상한 시국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깨우기 위함이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반전의 비결이 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믿음이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있었음에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었다. 한국교회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GNPNWS]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믿음으로 사는 복음 (5)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여정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2)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정죄함 없는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생명의 주체가 완전히 바뀐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주인 되어 육으로 살던 자가 십자가에서 끝나고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을 살아내도록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신다는 말이다.



일러스트=노주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

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1-4)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살아내도록 우리 안에 오신 진리의

성령님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새 생명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 사실을 믿고 누리며 산다는 의미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예레미야 2장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광야를 ‘길이 없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사막과 웅덩이가 있는 땅, 건건한 땅, 메마른 땅’이라고 표현한다.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 신인 사탄의 횡포 아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은 사막과 같다. 길이 잘 보이지 않고 건건하고 웅덩이와 함정이 여기저기 기다리고 있고 양식도 없고 물도 얻을 수 없는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의 노정을 가는 동안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보

호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거친 광야를 지난 40년의 시간은 사실 가장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성령님과 동행한 길이였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함께하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날마다 만나를 먹여 주신 광야는 고생길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과 부족함과 도전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생생히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 그러나 광야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체험하는 생생한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여정이다. (2017년 9월)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DRAW”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비/상/한/때, 비/상/한/기도

2.27 ~ 4.2

매주 목요일(2/27, 3/5, 3/12, 3/19, 3/26, 4/2)
1부 저녁 6시 기도회
2부 저녁 7시 ~ 9시30분 예배, 메시지, 기도

참여방법 : 유튜브 “김용의TV”를 통해 온라인 참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장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강사진 김용의 선교사(로그미션)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이태희 목사(그안예진리교회) 외

주관 (가나다순) 기도24·365본부 다윗의열쇠미니스트리 로그미션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순회선교단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 헤브론선교대학교 헤브론원형학교

주최 복음기도동맹

G&P 포엠

외과의사 예수님

서단비*

바이러스가 춤추는 늪에 인류가 사는 한 끊임없이 환자가 올라간다 그분의 수술대에는	한 번 두 번 횡수가 늘어나 이윽고 그 손에 소생하는 나를 보면 내 힘을 버려 평온한 믿음 순종에 비로소 아픔이 잊혀진다
번쩍이는 메스가 자르고 포셉이 붙잡아 끄집어내고 메첸의 양날이 끊어내고 큐렛이 긁어낸다	수고로이 흘리신 땀과 눈물이 너무도 황송하여서 기꺼이 들이마시는 사랑 그리하여 봄잎처럼 살아나는 속사람
변함없는 현실의 벨트가 손발을 수술대에 묶는다 사랑을 들이마시지 않아 생생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의	그분의 메스는 새파랑고 그분의 큐렛은 날카롭다 나의 의지가 믿음이 되고 순종의 들숨에 자아가 죽는다
치료자의 뜻은 희게 간절하고 죽음보다 붉게 강하다 저항 불가능의 은혜의 손길 씩어가는 환부를 소생시키는	비로소 또 한 번의 대수술을 마치고 한아름의 수혈을 마친 후 강한 손을 잡고 일어서면 더 가까이 계신 다정한 그분을 본다
염증 가득한 장기와 혈관 그분의 큐렛은 망설임이 없다 골수마저 뚫고 들어가 날카로움이 혼을 쪼갬다	붉은 사랑의 임금 되신 탁월한 의사이신 주님을, * 살롬예배공동체 전도사, 〈창조문예〉시 부문 등단.
그 손길이 없으면 죽을 텐데 살려 주셔도 원망하는 건 너무 아파서이다 거절하고 자처한 주제에	

내가 설 자리, 십자가의 자리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가깝게 지내는 한 집사님이 있었다. 어느 날 그분은 자신의 한계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됐다. 엄청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한 셈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사건을 기뻐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됐다. 꼭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마음이었다. 방탕한 동생이 돌아와도 기쁘지 않았던...

왜 그럴까? 기뻐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는데 이런 내 반응이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러다 말씀기도 모임에서 주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내가 그 집사님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을 자랑한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나를 자랑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셨다.

'너는 번성할수록 너의 제단과 너의 주상을 만들고 더 정교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호세아서를 통해 나의

실상을 드러내셨다. 순간 연기처럼 증발하고 싶었다.

또 하나의 사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목사인 남편이 수요 예배 때 강단에 선 모습이었다. 그 예배가 있기 전날 나는 밤새 남편의 영적 생활에 대해 따갑게 질책했다. 제대로 반박 못하는 남편을 보며 속으로 고소해 했다. 주님이 그 장면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이었음을.

이런 죄인인 나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으로 말씀하셨다. 이제껏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먹으며 명성과 빛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도 빛나고 주님도 빛나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런 건 없다는 걸 알았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길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



일러스트=고은선

리키심이라"(요 21:19)였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인된 생명이 죽었을 뿐 아니라 복음 전하고 욕먹고, 사랑했으나 멸시당하고, 오해받아도 주님이 묵묵히 지셨던 십자가가 오늘 내가 설 자리였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다. 결국 주님은 내게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

다음세대 훈련학교 섬김이를 마치는 날. 그날은 십자가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원해서 온 첫날이었다. 내가 마땅히 참석해야 할 중요한 결혼식이 있었지만, 섬김의 자리를 택했다. 훈련학교의 부르심이 결혼식보다 먼저 결정됐기 때문이다. 죄송한 마음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따른 그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주셨다. 나 같은 자에게 그 영광 보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GNPNEWS]

최미현

아웃리치 끝에 결단한 것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약속의 말씀대로 아웃리치는 정말 힘들었다. 무거운 짐을 메고 걸어 다니거나, 잠잘 곳도 확정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땅을 찾아온 이주민 형제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마침내 힘든 시간들도 끝이 났다. 약속의 말씀처럼 영광이 찾아왔다.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다. 가장 놀라웠던 일은 무작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고 교회를 찾아가 달려있거나 거절당하기

일수였다. 나는 우릴 받아 줄 교회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수준을 넘어섰다. 한 교회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줘서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교회에서 머물 수 있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던 아웃리치가 끝난 후, 나는 몇 가지를 결심했다. 먼저 교회 예배 시간에 줄지 않고 교회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한다. 이제 빛의 열매학교 훈련도 끝났으니 토요일에 교회에 가서 찬양 연습도 한다. 그리고 수요일에 드리는 가정 예배, 금요 철야예배도 드리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열방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로 했다. [GNPNEWS]

이주원(17)

부흥을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내 탈북자, 생명 위협 받아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중국에 숨어 지내는 탈북자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며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서 머물다 어렵게 한국 입국에 성공한 박 모 씨는 중국에 남아 있는 탈북자들은 요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더욱 엄격해진 중국 공안과 보건 당국의 검색, 검열 때문에 외출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숨어 있는 동안의 식량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박 씨를 만난 한국 북한인권단체인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병원에서 신분증을 보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신분증이 없어 갈수가 없고, 개인 병원도 요즘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게다가 인신매매로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간 탈북여성들은 심하게 몸이 아플 경우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심지어 중국 남성이 이

들을 중국 공안에 신고하는 경우까지 있어 불안감이 더하다고 데일리NK 소식통이 전했다.

이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데조차 없다. 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내 모든 이동 수단이 막혀 한국이나 제3국으로도 가지 못하게 되어 버린 탈북자들은 강제 복송 뿐만 아니라 감염 공포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GNPNEWS]



▶ 베이징 역에 들어가기 전, 공안이 여행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 (출처: 유튜브 채널 SCMP 캡처)

“국제인권단체, 한국에 北인권결의안 참여 촉구”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지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휴먼라이츠 워치(HRW),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세계기독교연대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날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인권실현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을 중

지시키고 인권 범죄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부지부장은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지속해서 자행하는 끔찍한 인권 유린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김정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그의 악행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베네딕트 로저스 세계기독교연대(CSW) 동아시아 팀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교 정책의 핵심에 놓

고 북한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와 대화 또는 개발 프로젝트만으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며 “인권 문제를 바로잡는 것만이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GNPNEWS]

복음의 능력

살아있는 진리

성령님은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 편지를 보내셨다. 그러나 이 편지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서신의 수신자가 되게 하셨다. 덕분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들은 말한다. “성령님은 이 편지들을 내게 보내셨다. 그분은 나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쓰셨다. 이것은 케케묵은 골동품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살아있는 진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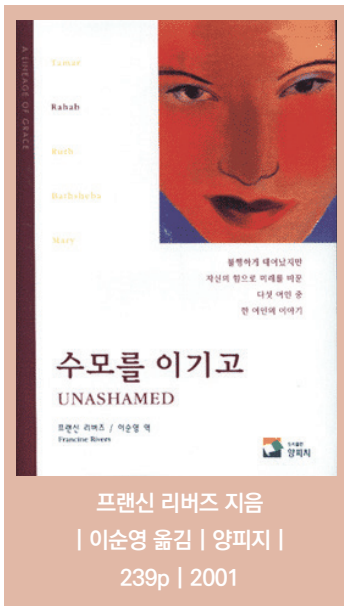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신선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은 이른 새벽 풀 위에 내려앉은 이슬처럼 신선하고 아름답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GNPNEWS]

성령님 (A.W. 토저, 2006)에서 발췌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프랜신 리버즈 <수모를 이기고>

시험과 수모를 이기고 마침내... 구원의 하나님만 남은 그 날



프랜신 리버즈 지음
| 이순영 옮김 | 양피치 |
239p | 2001

프랜신 리버즈가 회심한 후,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다섯 여인을 주제로 쓴 소설 시리즈 중 한 권인 이 책은 라합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라합의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로 엮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다.

여리고 성벽 위의 집에 사는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 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에 주목했다. 그녀는 흥해 물을 마르게 하고 애굽에서 주님의 백성을 구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졌다. 정작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온몸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익숙함으로 감흥 없는 40년 전 이야기였지만, 머나먼 이방의 패역한 성에 사는 기생 라합에게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한 소식이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혹시 그 한 사람, 라합의 구원이 아니었을까. 사실 라합의 존재와 삶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여리고의 어느 누구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행위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구원의 의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어머니

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찾아내신 것은 아닐까.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하는 혈통이나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의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셨다. 정탐꾼을 단번에 알아본 라합. 자기 동족과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 파송된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생명을 걸고 그들을 숨겨준다. 무력하고 혐오스러운 죄 된 존재에서 떠나 영원하고 유일한 신 한 분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모든 현실적인 두려움을 뛰어넘어 마땅히 붙들어야 할 그것을 붙들게 했다. 그녀는 그냥 목숨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다. 감히 자격은 전혀 없지만 말이다.

성벽 밖으로 붉은 줄을 내리라는 약속을 받아 내고,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모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기다리는 라합은 계속 인내와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 우상을 라합의 집에 끌어들

이고 계속 투덜거리며 불안해만 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전하려는 라합의 눈물겨운 믿음의 싸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간절히 기다리는 구원의 날은 그동안 그녀가 의지하며 몸담아 살았던 삶의 모든 터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다

그렇게 그녀를 가슴 뛰게 했던 흥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실제로 무너뜨리시는 것을 목도하게 됐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라합의 감격과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라합은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되고 보아스를 낳는다. 다윗 왕의 고조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마태복음 1장에 실리게 된 것이다. 마지막 날, 우리의 왕이 마침내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이 여리고성에 남아 있는 것 중 아무것도 들고 나갈 수 없다. 철저히 진멸되어 바쳐질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조금도 나은 것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구원을 약속받았다. 믿음으로 말이다. 그 날이 오기까지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겠으나 라합의 집 안에 모여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일상을 살아갈 수 없다. 앞치락뒤치락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조여 올 때에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성벽으로 내려진 붉은 줄을 바라보자.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자. 마지막 일곱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GNPNEWS]

이귀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어머니와 아들에서 든든한 동역자로

헤브론선교대학교에 부르심을 받아 섬김이로 순종한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 여름방학을 맞았다. 그동안 미뤄 왔던 어머니 왼쪽 무릎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홀로 계신 어머니와 가족을 주님께 맡겨 드린다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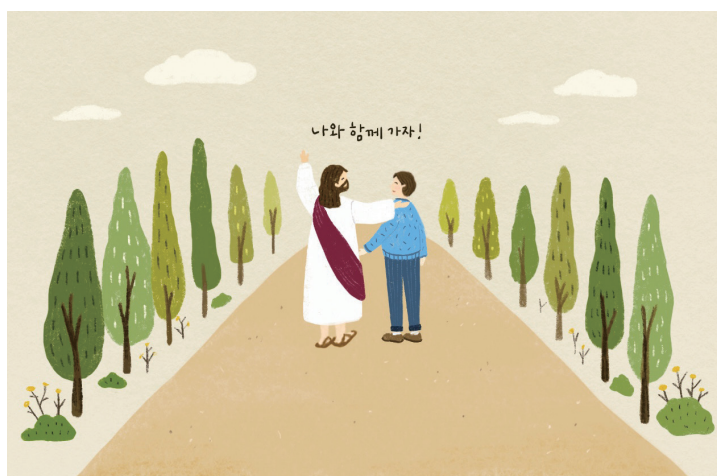
어머니는 가정과 직장에서 고된 노동에도 힘든 기색 한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몸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름휴가 때 알게 됐다. 한사코 만류하시는 어머니에게 몇 차례 권유한 끝에 병원 검사를 받았다. 한쪽 무릎 연골판이 파열됐으니, 수술하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대기자가 많아 수술을 바로 할 수 없었다. 다시 연락을 하기로 하고 휴가 일정을 마무리하고 학교로 복귀했다.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다. 학교일정과 겹쳤지만 학교 측의 배려로 어머니 수술에 함께 할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되었다. 며칠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만류에 결국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

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무릎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보호자의 병간호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의 회복은 주님께 맡기고, 선교사로 주님께 드린 아들은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다. 학교에서도 허락한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나에게 선교사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간곡히 말씀하셨다.

그 때에 보게 된 것은 무엇보다 어머니의 태도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요 남편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신 것이다. 강한 여성의 모습. 누군가의 딸로,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로, 이제는 나와 동생의 어머니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보다,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강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았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도 친히 아버지요, 남편이 되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어머니의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한편으로는 먹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번 일로 주님이 어머니와 동생



일러스트=이수진

과 가정 안에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계심을 보게 됐다. 주님은 약속으로 주신 로마서 말씀으로 나를 더욱 세우 주셨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롬 14:7~9) “지훈아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자꾸나.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도 이제는 이 길을

이전보다 더욱 믿음으로 함께 가지 않겠니?”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아니 기쁨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이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했다.

어머니의 믿음의 삶을 발견한 이후 어머니와 난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고민을 나누며 기도하는 사이가 되었다. 기독교 가정이었지만 집안에서 교회, 성경,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로서 든든한 기도 지원군이 되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신 주님을 찬양한다! [GNPNEWS]

문지훈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2. 5 ~ 2. 27 (가나다 순)

개인

권순효 김경선 김사회 김수미 노은옥 박상기 박성규 서호석 안민자 안병운 안수경 유국주 윤경석 은종숙 이남준 이영욱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장희숙 조형광 최근희 최점옥 최정숙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게르교회 모리아선교교회 문광교회 샘물교회 쉼 양덕원감리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참종앗다교회 하원교회 햄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GPM복음과기도미디어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새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